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삭막한 세상정화 방법은

작금의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져 가는 것 같다. 삭막하다. 때문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남편이나 애인, 부모 등에게서 잔혹하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오죽했으면 '안전이별'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부부 또는 연인과 헤어지는 일이란 뜻이다. 국어사전에 새롭게 등장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시달리다가 이혼 또는 헤어지면서 더 심각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끔찍하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1366(여성긴급전화)에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상담건수가 약 29만 건이었다.

그 중 가정폭력 상담이 18만 건으로 62.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성폭력 상담(2만 1,470건)으로 7.4%였다.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안전(50.9%)에 불안하다고 느꼈다. 특히 범죄발생(73.3%)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안함이 크다고 한다. 실제로 2016년 성폭력 피해자는 2만6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왜 이리도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 물질은 과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증가해 가고 있는데, 각종 문화발달도 경이로울 정도이고

간신도로 등 각종 편의시설은 또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가. 특히 오늘날의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라 하잖은가. IT, IE의 시대가 급속도로 열리고 있다.

이리도 문명의 이기는 출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인간성은 나날이 그에 반비례해서 끈두박질 중이다.

죄신과 수발의 시대가 그리워질 정도다. 이런 회한한 세상의 비밀을 마르틴 부버가 그 일부나마 풀어주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 또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관계성'을 맺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격이 무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삭막할 수밖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육방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도구나 물질처럼 여기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이란 말이다.

가톨릭의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복음 5장 27절)라는 것이다.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말은 여성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저지른 반사회적 폭력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흡혈귀 같은 인간이다. 불법 촬영물(물가), 성범죄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공급으로 엄청난 수익(약 2,000억 원 추정)을 축적했다고 한다.

그런 인간이 이를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여성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관음 함은 물론 여성의 고통을 사고파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우리사회의 무감각과 폭력성이 함께 빛은 비극은 아닐까.

부버가 말한 전형적인 '나와 그것' 또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관계형성이 멈추지 않는 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이의 해결방법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부단한 노력과 '영원한 너'를 매개체로 끌어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社說

편의점 과당경쟁 피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에 따른 출점 경쟁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처음으로 승인했다니 기대가 크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50~100m 내에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새로운 편의점을 출점할 수 없게 됐다.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포화 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 분야에서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 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 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으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

정하는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 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개별 출점 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

출점 제한은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번 자율 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하는 조치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垂拱平章

수공평장

垂拱平章

▷ 뜻: 밝고 평화(平和)스럽게 다스리는 길을 겸손(謙遜)히 생각함을 말함.

'달려라 보훈천사'로 따뜻한 보훈을

국민이 말하고 정부가 경청하는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혹은 가고자 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명쾌한 설명만큼 정부란 응당 그래야 하지 않은가라는 당연한 생각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

현 정부는 보다 나은 정부를 정부혁신의 브랜드로 내걸고,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보훈가족들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

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서부보훈지청은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려라 보훈천사'는 우리 지청만의 특화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 아니다. 노인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은 고령인구의 고독사 발생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2011년에는 686명인 것에 비해 2016년에는 그 수가 약 2배 증가하여 1,232명에 달했다는 통계가 그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전남서부지역 특성상 비연륙 도서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이다. 현재 우리지역 관내에 도서지역을 보유한 지자체는 신안군과 진도군 두 곳이다.

특히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훈가족이 거주하는 모든 섬이 다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재가복지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군이·통장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서지역 보훈가족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달려라 보훈천사

가 도입되었다. 우선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고령 보훈대상자 464가구를 선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보훈가족을 위문하여 보훈가족이 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동시에 개별맞춤형 생활용품을 제공한다. 그 중 고독사위험이 높은 28명을 선정하여 신안군이·통장협의회에 명단을 전달하여 한 달에 두 번 개별안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올해 2월 확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서지역 고령보훈대상자 방문을 90%이상 마쳤다.

기관장이 직접 도서지역 위문을 다니는 이례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지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달려라 보훈천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박수지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social harmony and elderly care.